

# 김영록·민형배, 신정훈 등 탈락 후보에 '러브콜' 경쟁

金,姜·辛에 “함께 가자” 연대 제안  
 閱 “후 후보 정책·비전 이어받을 것”  
 탈락후보들 누구와 손 잡을지 주목  
 “선택지 많지 않아 빠른 결정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와 민형배 국회의원이 일제히 신정훈 국회의원 등 경선 탈락 후보들을 향한 '러브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1대1 대대결 구도 속에서 김영록·민형배 후보(가나다 순) 모두 지지세 확산을 위해서는 신 의원 뿐만 아니라,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의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결선투표까지 남은 기간 동안 탈락 후보들이 김·민 후보 중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록 후보는 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기정 후보의 담대한 꿈, 신정훈 후보의 참신한 정책, 이개호 후보의 실용 정책 등을 모두 포용하고 녹여서 특별시 발전에 함께 활용하겠다”고 사실상 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 분들은 어려운 통합의 갈을 건너온 동지들”이라며 “통합의 제안자 김영록, 통합의 추진자 강기정, 통합의 입법자 신정훈, 이 세 사람이 대통합의 완성을 위해 함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결선 진출에 실패한 신정훈 후보에 대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전화를 한 두 차례 드렸고 만나서 함께 가자는 뜻으로 잘 말씀드릴 것”이라며 “신 후보가 강조해 온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강기정 후보에 대해 “어제도 통화

했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여러 가지 함께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이 차질 없이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연대 가능성을 높였다.

민형배 후보 역시 이날 전남도의회와 순천시 의회에서 2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함께 치열하게 달려온 신정훈 후보에게도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선 내내 신 후보가 보여준 통합특별시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큰 울림이었다”고 신정훈 후보를 추켜 세웠다.

민 후보는 또 “신 후보의 소중한 비전들을 제가 잘 이어받아 통합특별시의 길에 소중히 녹여

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앞서 민 후보는 전남 본경선 결과 발표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서도 “(신 후보의) 지역을 보는 따뜻한 시선, 삶의 가장 낮은 곳을 놓치지 않는 정치는 전남·광주에 꼭 필요한 가치”라며 “신 후보의 문제 의식과 비전, 소중한 제안들을 잘 이어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김영록·민형배 후보가 탈락 후보와의 연대와 포용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은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며 “신정훈·강기정 후보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만큼 연대 후보 결정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신정훈 “기대·희망 책임지지 못해 죄송”

辛 “결선 오른 김영록·민형배 축하”  
 姜 “최악 막기 위해 차악 선택해야”



신정훈

노력을 다해 주신 지지자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그 저 막막하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신 의원은 “30년을 집권해 온 민주당의 정치를 바꿔야 시·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을 꿈꿨다”며 “보내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동안 늘 기억에 새겨 살겠다”고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했던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정훈 후보가 결

선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저의 아픔이기도 하다”며 “신 후보 그래도 힘냅시다”라고 신 의원을 위로했다.

특히 강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심지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누가 뭐래도 통합특별시를 성공시켜야 할 책임 있는 사람이 돼버렸네. 힘 내세”라고 덧붙여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본경선은 신정훈·민형배·김영록 3파전으로 치러졌다. 지난 3·5일 실시된 본경선 결과, 민형배·김영록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은 오는 12·14일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실시된다. /양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6일 “여러분의 기대와 희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한없이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종 결선에 오른 김영록 후보와 민형배 후보에게 축하드리며 두 분의 선전을 부탁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경선 기간 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열망은 참으로 위대했고 아내와 저는 많이 행복했다”며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사무실의 일꾼들과 각지에서 헌신적인

## 국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페이스북에 연일 글 올려 지지 호소  
 “독점 깨는 임계치 우선순위 바뀔 것”

광주·전남 지역이 정치에 있어 결정적 변수가 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국책사업 배치와 미래산업 투자 방향이 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바닷속과 조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외면 속에서도 사명을 잊지 않겠다”며 “결과보다 미래를 보고, 지금보다 다음을 위해 끝까지 가보겠다”고 완주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정현 전 위원장은 전남에도 “다들 포기할 때 나는 광주로 간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다들 저에게 광주·전남 출마를 포기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물러서고 싶지 않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광주·전남에서 보수 후보에게 30%를 지지해준다면 정치가 달라진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위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광주·전남 30% 혁명을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독점을 깨는 최소한의 임계치”라며 “30% 혁명이 일어나는 순간



국민의힘

이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이끌다가 지난달 31일 사퇴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9·10일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자를 접수한다. /양시원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K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거리를 두고 일단 멈춰주세요. 보행자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